

서기원 『조선백자 마리아상』에 나타난 역사적 상상력의 의미*

서 은 혜**

요약

서기원의 『조선 백자 마리아상』은 한국 초기 천주교 순교사를 주축으로 허구화를 가미한 소설로, 작가 개인의 내면이 실존인물의 허구화에 투영된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해리 쇼가 역사소설 내 역사 활용 양상을 분류하면서 일컬은, ‘목가로서의 역사(history as pastoral)’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며, 더불어 배반에 얽힌 팽팽한 긴장과 갈등을 강조한 플롯으로 독자의 심리적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극적 에너지의 원천으로서의 역사’ 활용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천주교 탄압사를 소설화하기 위해 서기원이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출판물로 71년 당시 출간 상태에 있었던 정약용의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이능화 『조선 기독교금의교사(朝鮮基督教及外交史)』,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사료를 참조, 변형하면서 그는 배반의 플롯을 예각화하고 정약용의 복잡한 자기 분열 상태를 그려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경제기획원 대변인직을 맡게 되었던 70년대 초반 행적과 관련된 작가의 내면 투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제어: 『조선 백자 마리아상』, 서기원, 역사소설, 목가로서의 역사, 극적 에너지의 원천으로서의 역사, 역사적 상상력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8061911)

** 한림대학교 글로컬융합인문학/국어국문학 전공 조교수

목차

1. 서론
2. 한국 초기 천주교회사와 『조선백자 마리아상』의 사료 수용
양상
3. ‘배반’의 주제에 대한 예각화와 공직 참여의 딜레마 투영
4. 계급 간 대립구도와 지식인의 나약함에 대한 자기반성
5. 결론

1. 서론

서기원의 『조선 백자 마리아상』은 본래 ‘이조 백자 마리아상(李朝 白磁 마리아像)’이라는 제목으로 『현대문학』에 1971년 8월부터 1973년 3월까지 19회로 연재되었다.¹⁾ 서기원이 1973년 4월 경제기획원 대변인으로 일하게 되면서 미완 상태로 남겨두었다가, 1979년 ‘조선백자마리아상’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결말을 약간 추가하여 한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된다.²⁾

서기원의 소설 세계 전반에 대해 검토한 조남현은 그의 소설 세계를 심리소설, 전쟁소설이 자주 나타나는 1기와 정치소설, 세태소설 등이 나타나는 2기, 그리고 소시민 주인공이 등장하며 일상적 리얼리즘으로 볼 수 있는 3기로 나눈다. 그리고 71년 이후인 3기에 속하는 대표작으로 「어느 충주목사」, 「이인직진」, 「마록열전」을 꼽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 『현대문학』 연재 원본 확인 결과, 1972년 12월은 연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기본 자료로 『현대문학』 연재본을 사용하지만, 작품명을 지칭할 때는 단행본에 게재된 ‘조선백자 마리아상’을 따르도록 한다. 단행본 후기에서 작가가 ‘이조’라는 표현보다 ‘조선’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 게재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 서기원은 단행본 후기에서 “직장을 옮기고 또 집안 일이 있어 어수선하여, 이 연재의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여러 해가 지났”다고 말하고 있다. ; 서기원, 『조선백자마리아상』, 한진출판사, 1979, 339면.

현실의 저층을 날카롭게 포착하던 시선이 70년대 이후로 가면 무너지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³⁾

서기원의 역사소설은 이와 같은 시기 구분법에 의하면 초기에 비해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3기 창작에 해당되지만, 그럼에도 역사소설 장르론에서는 작가 특유의 지적 통찰력과 삶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잘 드러난 것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⁴⁾ 그의 역사소설 전반에 대해 검토한 연구들에서는 주제적인 면에서 통치 이데올로기의 억압성을 드러내거나 현재의 전사(前史)로서의 과거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은선은 『김옥균』, 『왕조의 제단』 등의 검토를 통해 서기원의 후기 역사소설이 통치 이데올로기 내에서 개인, 개체가 도구화되는 양상을 그려냈다고 평가하고, 『조선백자 마리아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시파와 벽파로 나뉜 당쟁이라는 정치 논리의 판 속에 ‘천주교’라는 이질적인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조선후기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고 본다. 양민 신봉의 목소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이처럼 공고화된 지배 체제 내에서 묵은 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 모순을 되돌아보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⁵⁾

서기원의 역사소설 중 작품론으로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동학을 다루고 있는 『혁명』(1964-1965)에 대한 것이다. 『혁명』은 『들불』과 함께 가공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역사소설의 새로운 유형을 개척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⁶⁾, 동학 운동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천착보다 현주의 심리나 관념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탈역사적 허구화”⁷⁾, “탈

3) 조남현, 「다양한 소재에서 정직한 인식으로」, 『암사지도』, 민음사, 1996, 357-379면.

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판, 민음사, 2012, 223면.

5) 이은선, 「서기원 소설의 주제 연구: 몸의 정치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75-82면.

6) 송하준, 「歷史의 事實의 小說化 問題-「革命」과 「들불」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19, 국어문학회, 1978, 150면.

7) 이주형, 「동학농민운동 소재 역사소설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그 소설화 양상 연구」, 『국어교

역사화’⁸⁾ 소설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역사’와 ‘소설’ 중 어느 것이 작품에서 지배적으로 드러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역사소설의 장르적 성격과 관련된 전체적 유형 분류에는 의미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개별 작품론에 풍부하게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중층적 의미들이 소거될 수 있는 한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혁명』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류동규는 4·19에서 5·16, 다시 한일협정 반대운동으로 이어지는 ‘1960년대 혁명’을 인식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동학 혁명이라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동학 혁명과 1960년대 혁명이 서로 상호 인식을 위한 참조점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현주의 르상티망이라는 도덕 감정은 동학 혁명 당시 양반 계급의 내면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60년대 혁명에 대한 사회적 감정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⁹⁾ 그의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이중적 시간적 배치 구조, 역사적 상상력의 세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세밀히 규명하고 있으며, 서기원 역사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의 심리 묘사를 단순히 인간 본연의 보편적 감정으로 환원하지 않고 작품이 창작된 시간성과 긴밀히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수영의 연구 역시 『혁명』을 60년대 지배층에 의한 혁명담론을 전복하는 자리에 놓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봉준의 권력욕 묘사 부분을 이러한 의도가 담긴 부분으로 말하고 있어¹⁰⁾, 연재 당시의 시간성이 역사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간성과 어떻게 조응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조선백자 마리아상』의 경우 개별 작품론보다는 서기원 역사소설 전반

육연구』 33:1, 국어교육학회, 2001, 171-211면.

8) 박수빈, 「역사소설의 탈역사화 서술 연구-서기원의 『혁명』론」,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4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245-265면.

9) 류동규, 앞의 글, 291-319면.

10) 우수영, 「1960년대 동학소설과 박정희 군사 정권의 혁명 담론: 최인옥 『전봉준』, 이용선 『동학』, 서기원 『혁명』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제50호, 동학학회, 2019, 68-76면.

의 경향성 내에서 논의되었다. 강정훈은 『조선백자 마리아상』의 경우 서기원의 『혁명』, 『김옥균』과는 다르게 민중 주인공을 내세워 당시의 지배 계급이자 지식인 계층과 다르게 역사의 흐름에 몸을 던질 수 있었던 민중의 힘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작품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조선백자 마리아상』은 민중 주인공 설정을 통해 역사의식의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¹¹⁾

이처럼 서기원 연구사 내에서 상대적으로 후기 역사소설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아직 적은 편이다. 『조선백자 마리아상』 또한 『혁명』처럼 소설 속에서 묘사된 초기 천주교 탄압이라는 역사적 시간대와 소설이 연재되던 70년대 초반 당대의 상황성이 이중적으로 상호 참조되는 중층적 텍스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연구사 내에서 본격적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이다. 이 소설의 이중적 시간성을 검토하기 위해, 역사소설 이론가인 해리 쇼(Harry E. Shaw)의 ‘목가로서의 역사(history as pastoral)’ 개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쇼는 역사소설 장르를 정의하기 위하여 토도로프의 ‘이론적 장르’와 ‘역사적 장르’ 사이의 구분을 차용하되, 실제 문학작품에서 이들 양상이 어떻게 교차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소설 안에서 이를 살펴보는 방식은 역사 활용 양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역사소설 안에서 역사가 활용되는 양상에 따라 ‘주체로서의 역사’, ‘목가로서의 역사’, ‘극적 에너지의 원천으로서의 역사’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다.¹²⁾

주체로서의 역사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소설 창작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떻게 결말 맺게 되었는지 등이 중심이 된다. 이들 소설은 독자의 미학적 즐거움이 역사 그 자체의 재현과 매개에 놓이는 작품들로, 해리 쇼는 그 사례 중 하나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들고 있다.¹³⁾ 목가로서의 역사란, 과거를 활용하여 현재의 문

11) 강정훈, 「서기원 소설 연구-후기소설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0-32면.

12) Harry E. Shaw, *The Forms of Historical Fiction*,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 51-52

제를 보다 명료화하거나,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과거를 무대로 현재를 드러내는 위장된 표현을 수행하는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역사 활용 양상은 역사를 이데올로기적 스크린으로 만듦으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역사적 차이가 소거된다는 한계도 있다.¹⁴⁾ 극적 에너지의 원천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 멜로드라마적 에너지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거나, 카타르시스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활용된 소설들이다. 이들 역사 활용 양상은 한 작품 내에서 공존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작품 내에서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도 한다.¹⁵⁾

이 중 ‘목가로서의 소설’이 현재를 과거에 투영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쇼는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속선을 플롯상에서 뚜렷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사소설을 창작할 때 저본이 되는 공식적 사료에 드러나지 않은 빈틈을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메우는 행위이다. 세 번째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과거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수한 입각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허구화를 통해 병치시키는 방법이다.¹⁶⁾ 사실 이 네 가지는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교차되고 공통점을 공유하는 방법들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서기원의 『조선백자 마리아상』을 보기 위해, 우선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초기 천주교 박해 관련 사실을 어떤 사료를 통해 참조했는지를 추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의 변용을 통해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어떤 식으로 개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쇼가 말했듯 공식적 사료에 드러나지 않은 빈틈이 어떤 이야기 구조로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의 2장에서는 우선 『조선백자

13) 위의 책, 100면.

14) 위의 책, 56면.

15) 위의 책, 52면.

16) 위의 책, 71면.

마리아상』의 역사적 사실들의 플롯화와 연관성이 깊은 사료들의 범주를 추려보고, 변용 양상을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는 작품이 연재된 70년대 초반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서기원 개인의 전기적 사실, 서기원이 관심을 두던 문학적 주제 등을 함께 아울러 작품이 연재되던 ‘현재’의 시간성이 천주교 탄압이라는 ‘과거’의 시간성과 어떤 식으로 융화, 길항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존 서기원 역사소설을 인간 본연의 심리 묘사나 관념소설적 특징을 가진 것만으로 유형화하던 시각을 벗어나, 개별 역사소설 작품 자체가 지닌 중층적인 시간성과 의미망을 좀 더 다채롭게 드러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한국 초기 천주교회사와 『조선백자 마리아상』의 사료 수용 양상

『조선백자 마리아상』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적 배경은 1791년 ‘진산 사건’이라 불리는 윤지충과 권상연의 제사 철폐와 그로 인한 천주교도 박해 서부터 1794년 주문모 신부의 조선 파견, 1795년 최인길, 윤유일, 지황이 순교하는 을묘박해에 이르는 시대이다.¹⁷⁾ 초기 천주교회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묘사되고 있으며, 특히 역사적 실존 인물 중에서는 이가환, 정약용과 정약중, 정약전 형제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¹⁸⁾ 더불어 사기장이인 김신봉과 정약용 가문의 하인이던 최은돌, 윤길마을 사람들 등 창조된 인물들의 플롯이 어우러지고 있다.

17) 문규현, 『한국천주교회사 I』, 빛두레, 1994, 23면 참조

18) 물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은 수적으로 훨씬 더 많다. 체제공, 이기경 등 조정 대신들과 주문모 신부를 보호하던 강완숙, 탄압의 희생양이 된 권일신, 을묘 박해 때 희생되는 최인길의 이야기가 묘사된다.

우선 서기원이 이 소설을 창작할 때 참조했으리라 추론되는 사료들의 범주를 추려보면, 조선 시대 천주교 수용사가 정리된 사료로는 달레(Claude Charles Dallet) 신부가 저술한 『한국천주교회사』(1874)와 일제강점기 이능화가 저술한 『조선기독교급외교사(朝鮮基督教及外交史)』(1928)가 있다. 이외 정약용의 천주교 수용과 초기 천주교 수용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고백록 성격의 글인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광중본과 집중본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는 데이터베이스상 1979년부터 다시 간행되었고 그 이전 자료를 찾기 어렵다. 또 정약용의 「자찬묘지명」은 1960년대 간행된 『정다산전서(鄭茶山全書)』 안에 수록되어 있었으며¹⁹⁾, 『조선기독교급외교사』는 60-70년대 여러 출판사에서 영인본을 간행한 상태였다.

이중에서 정확히 서기원이 어떤 자료를 참조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남아 있지 않다. 대신 당시 출간되어 있던 순교사나 주요 인물의 회고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출간물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정약용은 자신의 생애 중 천주교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주문모 신부가 순교한 을묘박해의 간략한 과정과 그 이후 조정에서 이가환이 모함을 받아 충주목사로 내려가게 된 과정, 그리고 자신이 금정 찰방으로 가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한다. 충북 홍주 지역에 있던 금정역 지역은 천주교도가 많았고, 임금 이 자신을 그 지역으로 가게 한 것은 직접 천주교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벼슬아치로서의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함이라 해석한다. 결국, 이 기록에 따르면 정약용은 공주 지역 천주교도인 이존창을 체포했던 이정운이 자신에게 공을 돌려 다시 임금에 의해 발탁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²⁰⁾

19) 「자찬묘지명」에서도 주문모 신부의 입국과 이가환과 정약용의 지방 발령을 이야기하고, 윤지충과 권상연의 옥사, 최인길과 윤유일 등 주문모 신부 관련 3인이 장살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 김수태, 「정약용과 천주교의 관계 재론」, 『교회사연구』 제42호, 한국교회사연구소, 2013, 280면.

이능화의 『조선택기독교급외교사』는 천주교 초기 수용과 박해를 봉당 정치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²¹⁾ 서기원 역시 『조선택자마리아상』에서 채제공과 이가환, 정약용을 중심으로 한 시파와 벽파 사이의 대립을 중점적으로 그려낸다. 또 『조선택기독교급외교사』는 특히 『조선택자 마리아상』에서 그 행적과 심경이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되는 이가환, 정약용 형제들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 소설의 창작에 바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는 1971년 시점에 정확히 어떤 판본을 참조했을지 추론하기 어렵다. 한계를 무릅쓰고 1987년 판본과 대조해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저서에서는 윤지충, 권상연과 같은 순교자들의 직접적 목소리를 인용하고, 그들의 용기와 신념을 강조하거나²²⁾, 최인길, 강인숙과 같은 인물들이 교황청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등, 주로 순교의 숭고함을 부각시키는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주문모 신부를 입국시키고 교리를 전파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최인길이나 강인숙과 같은 인물의 약력을 요약적으로 서술해 그들의 인물됨을 알려주고자 한 시도도 주목된다.²³⁾ 신주를 불태웠다는 소문으로 추궁을 받는 권상연의 심문 장면 등이 신봉의 그것으로 전이되거나, 작품 속에서 주문모 신부를 헌신적으로 보필한 강인숙 골롬바, 신부 체포를 막기 위해 자신이 중국인 행세를 한 역관 최인길이라는 인물의 기본 행적을 토대로 플랫폼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을 부분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래 서기원이 ‘이조백자 마리아상’이라는 제목으로 『현대문학』에 연재를 시작하기 6개월 전인 1971년 2월, 그는 「어느 충주 목사」라는 단편 역

20) 신창호, 『정약용의 고해』, 추수밭, 2016.

21) 신광철, 「이능화의 종교사학과 한국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4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191면.

22) 샤를르 달레, 안응열·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上)』,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337-352면.

23) 위의 책, 382-386면.

사소설을 『월간중앙』에 발표하였다. 이 소설은 『조선백자 마리아상』에 나온 이가환의 이야기와 거의 다르지 않다. 이 짧은 단편은 「자찬묘지명」과 비교해 보자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충주목사로 가게 된’ 이가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임금의 ‘배려’로 천주교도를 잡은 역할을 금정 찰방으로 수행해야 했던 정약용의 이야기가 극화된 것이다. 즉 정약용의 대략적 고백이 이 소설에서는 이가환의 그것으로 변용되어 그려지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이가환이 서학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배척받자 임금은 그를 아끼는 마음에 그를 외직인 충주목사로 부임하도록 하고, 왕의 배려에 감응하며 자신의 신앙을 배반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 과정에서 정약전이 부임을 앞둔 이가환에게 와서 영세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에 이가환은 정약전이 잔인한 사람이라며 분노한다. 그를 천주교도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던 충주에 부임하도록 한 것은, 그 곳에서 직접 그 숫자를 줄어둘게 하여 조정에 본을 보이라는 왕의 뜻이 담겨 있었고, 그는 한 때 천주교도였던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잔혹하게 천주교도들을 탄압하고 고문한다. 이 짧은 이야기는 『조선백자 마리아상』에도 거의 그대로 옮겨지고 있는데, 정약전 대신 정약중이 이가환을 찾아오는 것 등 세부적인 사실만 달라지고 있다. 또 정약전의 도전적인 방문을 받은 이가환이 느끼는 고립감이 묘사되는 것이 『조선백자마리아상』과의 차이점이다.²⁴⁾

이것을 확인해 본다면, 본래 서기원이 초기 천주교회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을 창작하려 할 때 주요 동기가 된 것은 『자찬묘지명』에 이야기

24) “「입신? 언제 내가 입신을 했던 말인가. 생사람 잡지 말아. 내 천주학을 공부한 건 사실이되, 입신한 일은 없네」

정약전은 눈을 감고 있었다. 삭막한 침묵이 흘렀다. 이가환에겐 둘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고립감(孤立感)이었다. 아까 한말이 절대로 거짓말은 아니었는데도,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꾸며낸 뒤의 공허한 심사 바로 그것이였다. 그런 삭막한 기분은 아내가 손수 술상을 차려 왔는데도 쉬이 풀어지지 않았다.

「잔인한 사람들이야!」; 서기원, 「어느 충주 목사」, 『월간중앙』 1971.2, 363면.

된, 정약용의 고백의 행간을 읽어내려는 관심과 흥미에서 비롯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정약용의 『자찬묘지명』이 엄격한 유교사회 내에서 편찬된 글이기 때문에 천주교 관련 일들의 사실적 차원만 언급하고 그치며, 그마저도 철저하게 천주교와 거리를 둔 유학자 입장에서 서술됨에 반해, 서기원은 정약용을 또다른 실존인물 이가환으로 변용하면서 배교로 인한 인간적 분열과 모순을 극대화하여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천주교도였지만, 그를 아끼는 왕의 배려와 애써 얻은 공직의 길과 사대부의 위신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배교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다. 그는 후자를 단순히 택한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배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철저히 다른 천주교도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자신처럼 배교한 사람들도 그들이 진실로 배교를 행하였는지 알 수 없다며 의혹을 가지는 사람이다. 한 인간으로서 이가환이 보여주는 철저한 자기 배반은 그 극한성으로 인해 놀라움과 관심을 자아내는 면이 분명히 있고, 서기원 역시 이 인물로부터 출발하여 당시 남인 시파가 마주해야 했던 배교의 상황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복잡다단한 내외적 갈등을 그려보려는 동기에서 『조선백자 마리아상』을 구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서기원이 ‘배교’ 혹은 ‘배반’을 둘러싼 인간의 아이러니나 미묘한 긴장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 소설을 창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을묘박해 때 주문모 신부를 밀고한 배교자 한영익을 서사화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서 한영익 관련 서술은 주문모 신부를 만난 이후 “그의 마음에는 나쁜 계획이 생겨났다”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으며, 배반 이후 그가 후회하며 객사했다는 관습적 언술로 마무리하여 배교를 경계하는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낸다.²⁵⁾ 그러나 서기원은 잠깐 서술되고 지나가는 이 인물 역시 배반을 둘러싼 인간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재탄생시킨다. 소설 속에서 한영익은 본래 배교자였

25) 샤를르 달레, 앞의 책, 379, 382면.

으나 주문모 신부의 입국 후 다시 죄인길을 찾아와 회개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용서를 실천하라는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죄인길의 난처한 입장에 대한 묘사나 같은 배교자의 입장에서 회개를 청하러 왔던 이승훈과 한영익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자 이승훈이 언짢아하는 부분 등에서는 한 번 배반한 자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배반을 진실로 후회하는 자와 배반을 후회하는 것을 빌미삼아 또다른 배반을 자행하려는 자의 미묘한 긴장관계를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말뜻을 알아들은 주 신부는 두 손을 벌리며 한영익을 맞는 시늉을 했다.

「저는 천주님께 대죄를 지었습니다. 성찰(省察)과 통회(痛悔)와 정개(定改)를 마쳤으니 이제 신부님께 고명(告明)할까 합니다.」

교리의 요체를 순서대로 외는 것이었다.

「고명은 판 사람들 앞에서 할 것이 아니지요. 또 신부님께선 서면으로 고해를 받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되풀이 머리를 조아리는 한영익이었다. 이승훈은 그런 광경을 멀리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하필이면 배교자 둘이 똑같이 양반이란 말인가. 더구나 한낱한시에 똑같이 고해를 원하고 있다니 무슨 꼬락서니인가. 아마 이런 씁쓸한 심사일 법도 하다.²⁶⁾

『조선기독교급외교사』와 『조선백자마리아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기독교급외교사』에서 이능화는 이가환이나 정약용 형제가 정조 치세에서는 별다른 화를 입지 않다가 순조가 즉위하면서 신유박해로 몰살당한 이유를 정조의 개인적 야깁과 배려에서 찾고 있다. 이능화는 정조가 이가환의 재질을 아꼈으며, 채제공(蔡濟恭)이 남인 시파의 거두로서

26) 서기원, 「이조백자 마리아상」 13장, 『현대문학』 1972.8, 236면.

이가환을 뒷받침해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 수용에도 가혹한 탄압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²⁷⁾ 이 점은 정약용의 서술과 이어지는 것이다. 이능화는 시간별로 이가환과 정약용에 대한 벽과의 상소와 그에 대해 정조가 그들을 외직에 부임하도록 한 사실을 교차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전반적 이해는 『조선백자 마리아상』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남인 시과의 우두머리 격인 채제공의 비호와 왕이 이가환을 외직에 내보내면서 따로 불러 당부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조선기독교급외교사』와 소설과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능화에 따르면, 정조가 정약용을 금정 찰방으로 봉한 것이 정조 19년 을묘년 가을 7월이었고, 정조 21년 6월에 승지였던 정약용의 상소를 기록한다. 이 상소에서 정약용은 자신이 약관의 나이로 천문, 역서와 관상, 측량 등을 넓게 포용하고자 서학을 수용하였으며 바른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한때의 실수였다는 표현이 쓰여 있다.²⁸⁾ 그런데 『조선백자 마리아상』에서는 정약용이 승지로 제수되었다가 천주교 탄압의 기미가 강력해지자 금정 찰방으로 ‘좌천’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천주교와 서학의 세상의 존재 이치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였을 뿐 내세관을 수용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자신은 천주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합리화를 하는 인물이 정약용이 아닌 이가환으로 변용되어 있다.

한편 초기 순교자들에 대한 교회사의 기록과도 배치되는 지점들이 있다. 우선 본격적 탄압이 있기 전에는 조정에서 천주교를 믿은 양반들은 대체로 석방하고, 중인인 김범우에게는 배교를 강요하다가 끝까지 신앙을 주장하자 곤장을 쳐서 귀양을 보냈다. 1790년 천주교리 중 제사 금지 항

27) 이능화, 『朝鮮基督教及外交史』, 영원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81, 101면.

28) “曾子曰. 吾得正而斃라 하니 臣亦慾得正而斃矣니다 臣之得見是書는 蓋在弱冠之初호니 而此時에 原有一種風氣호야 有能說天文曆象之家호며 農政水利之器호며 測量推驗之法者호니 流俗相傳호야 指爲該洽일식 臣方幼眇라 竊獨慕此호니다” ; 위의 책, 같은 면.

목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천주교도들 중 양반층이 대거 이탈하였으며, 1791년 제사를 폐했던 윤지충과 권상연이 그것을 이유로 순교하게 되었다. 그리고 1794년 말 주문모 신부가 파견되면서 제도가 정비되고, 1795년 주문모 신부 체포령이 내리자 그를 보호하던 윤유일, 지황, 최인길이 장살된다.²⁹⁾ 본래는 양반 가문 출생인 윤유일, 약사 집안 출신인 지황, 역관 집안의 최인길이 희생된 을묘박해를 서기원은 허구적 인물인 노비 최은돌, 역관 최인길, 윤유일이 희생된 것으로 그리는데, 실존 인물인 윤유일이 양반 출신인 반면 작가는 김신봉의 입을 통해 모두 중인 이하 계층이 희생된 것으로 변용하여 그리고 있다. 작품 안에서 김신봉이 자신에게 천주교를 알려준 최은돌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약용 형제들 등 사대부들은 무사히 몸을 보신하고 오직 중인이나 상민, 노비들이 순교자가 되는 현실에도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조선기독교급외교사』나 초기 천주교 관련 기록과 『조선백자마리아상』의 차이점과 변용 양상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사료와 『조선백자마리아상』의 변용 양상과 의미〉

사료	조선백자마리아상	변용 양상	의미
정약용 : 금정 찰방 → 승지	정약용: 승지→금정 찰방	‘좌천’을 통해 정약용이 겪는 내면적 고뇌가 더욱 두드러지도록 함	
정약용: 천문, 책력과 관상, 측량 등 서학이 전하는 이치에 20대 어린 나이에 매혹되었을 뿐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상소	이가환이 학술적 동기로 서학을 접하였을 뿐 자신은 천주교도가 아니라는 자기합리화를 하는 장면	정약용의 상소 내용이 이가환의 생각으로 변용됨	정약용은 내면적으로 배교하지 않았으면서도 외적으로 마치 배교자인 듯 처신하여 자기 분열이 심화되도록 그림
1795년 양반 윤유일, 중인 최인길, 지황이	허구적 인물이자 노비인 최은돌이 추	최은돌의 죽음에 분노한 김신봉은 정약	천주교 탄압을 마주한 사대부와 이외

29) 문규현, 앞의 책, 22-23면.

순교함 (을묘박해)	가적으로 순교한 것으로 그려짐	용 형제 등 사대부들의 희생 없이 중인 이하 계층만이 순교의 길을 택하는 것을 비판	계층의 대립구도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려는 작가의 의도
------------	------------------	--	-------------------------------

종합해 보자면, 『자찬묘지명』에 언급된 정약용의 모순적 상황, 즉 자신이 천주교를 믿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배교하고 오히려 천주교도들을 잡아들여 다시 벼슬길을 회복해야 했던 ‘배교’의 상황은 서기원에게 「어느 충주목사」와 『조선백자 마리아상』을 창작하도록 흥미를 유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찬묘지명』에서 유학자로서 서술한 이 짧은 기록에 살을 붙일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천주교회사 관련 실존 인물 형상화 부분은 『한국천주교회사』 등 당대 출간되어 있던 저서들을 참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선기독교급외교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을묘박해 이후 이어지는 조정 내에서의 시파와 벽파의 대립이라는 서사 줄기는 체제 공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의 이야기 형상화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³⁰⁾

소설에서 정약종은 주문모 신부의 입국 이후 명도회를 이끌며 천주교 교단의 확립에 힘썼다는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이가환이나 정약용 등의 배교를 못마땅해 하고 곳곳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인물로 그려지며, 이가환은 왕의 배려에 대한 마음씀과 벼슬과 영화에 대한 욕망으로 거침 없이 배교를 행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 점은 『자찬묘지명』이나 『조선기독교급외교사』와도 다르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정약용은 복잡한 내면적 고뇌를 보이는데, 체제공이 임금에게 정약용이 천주교도가 아니라는 말을 했고 그는 그 말에 부인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이가환이나 배교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언한 이승훈이 오히려 자신보다 떳떳하고 용기 있다고 생각할 만큼, 내적으로 신앙

30) 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천주교회사나 당시 조정 관련 기록을 폭넓게 비교 대조하지는 못했으며, 대표적인 천주교 관련 기록으로 논의되는 「자찬묘지명」, 『조선기독교급외교사』만을 대상으로 논의한 점은 이 논문의 한계이기도 하다.

을 유지하려는 마음과 외적으로 그 태도를 드러내기 어려운 것에 기인한 자기 분열이 극심한 인물로 그려진다. 『자찬묘지명』에서 정약용은 ‘배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철저히 유학자의 관점으로 천주학 수용을 사실적 차원의 나열로만 서술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키독교급외교사』에서 이능화는 정약용이 상소를 통해 자신이 천주교의 교리를 배우는 데 흥미가 있었을 뿐 신앙을 가진 것임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서술하는데, 이 점은 이능화가 정약용의 ‘배교’를 상소라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 플롯화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소설 『조선백자마리아상』에서 정약용은 스스로 대외적으로 신앙인인지 여부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기원이 정약용의 내면적 고뇌를 그리면서 자기 분열과 나약함의 모순을 체현한 지식인의 전형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식적 천주교회사에서 윤유일, 지황, 최인길이 순교한 을묘박해 사건에 노비 최은돌이 추가적으로 순교한 것으로 그려지는 부분도 주목할 수 있다. 최은돌의 죽음을 계기로 신봉의 의구심이 폭발하고, 종교에 의해 신분의 평등이 이룩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박해 앞에서 몸을 보신하기 바쁜 기득권 계층의 모순이 신랄하게 비판되기 때문이다. 즉 천주교가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의 체제와 충돌하면서 드러낸 사회적 모순 자체가 소설 속에서는 중요한 갈등 요소이자 플롯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즉 역사적 위기 앞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지식인들’의 비겁함이나 자기변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배반’의 주제에 대한 예각화와 공직 참여의 딜레마 투영

이처럼 『자찬묘지명』과 『조선키독교급외교사』 사이에서 정약용의 ‘배교’는 문제적인 것이 된다. 유학자의 시점으로 서술한 『자찬묘지명』의 경

우 임금의 은혜로 천주학 수용이라는 ‘죄’는 관대하게 경감된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후대의 역사가에 의해 정약용이 천주 신앙 자체를 부정하고 ‘천주학 수용’으로 자신의 행위를 말하였다고 서술되며, 정약용이 당시 조정에서 처했던 어려움이나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했던 말과 행위가 새롭게 조망될 수 있다.

「어느 충주목사」의 주체나 『조선백자 마리아상』의 실존 인물에 상상력을 부여하는 서술행위로 볼 때 서기원은 ‘배반’의 상황, 즉 자기 신념에 대한 배반이 외부 세계와 맞물려 어떤 식으로 긴장을 자아내고 인간의 모순된 속성을 폭로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해리 쇼가 구분한 역사 활용 양상 중 ‘극적 에너지의 원천으로서의 역사’, 즉, 배반이라는 갈등 상황으로부터 파생되는 심리적 에너지의 추이에 초점을 맞춘 역사 활용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판단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조선백자 마리아상』의 이러한 ‘배반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 관심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유달리 내면 심리 묘사의 비중이 커서 이가환이나 이승훈처럼 뚜렷한 배교자나 윤유일, 지황처럼 뚜렷한 순교자 어느 한 쪽으로 나누어 생각하기 어려운 정약용이나 신봉 인물형은 문제적이다. 실존 인물을 변용하고, 또 완전히 허구적 인물을 창조하면서 서기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설 속에서 정약용은 이승훈처럼 배교를 자신이 선언하지도 않았고, 이가환처럼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지도 않았다. 아니면 형인 정약종처럼 벼슬을 마다하고 곳곳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도 아니다. 체 제공이 그를 대신하여 임금에게 정약용은 천주교도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을 뿐, 그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다. 실상 그는 마음 깊이로부터 배교하지는 않았지만, 가문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망설이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자각과 자괴감은 소설 속에서 여러 번 묘사된다.

마재 형님이, 광주의 사또께서, 그리고 동색(同色) 친지들이 자기를 보는 눈초리를 모르는 정약용은 아니었다. (중략·인용자)

알아줄만 할 텐데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나를 배반자로 몰고 싶은 것일까. 이런 심정이 다름 아닌 자격지심인지 모를 일이다.

형님이 서울로 이사오겠다는 것은 동생의 감투 그늘에 피신하기 위해 서가 결코 아니리라. 그만한 감투도 못되니까. 허지만 내가 권세 언저리에 매달려 있는 한 형님뿐만이 아닌 여러 교우들에게 허다 못해 바늘귀를 대신 끼어줄 정도의 구실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쯤 기대라도 나에게 걸어준다면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들 마시오.³¹⁾

인용문은 형인 정약중이 자신을 보는 시선에 대해 정약용이 가진 은밀한 반감을 서술하는 부분이다. 자신은 배반자가 아니지만, 자신을 보는 형의 시선은 배반자를 보는 듯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정약용은 “내가 권세 언저리에 매달려 있는 한 형님뿐만이 아닌 여러 교우들에게 바늘귀를 대신 끼어줄 정도의 구실”을 한다고 자기합리화를 행하고 있기도 하다. 즉 자신이 벼슬을 하고 있는 것이 교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실이 된다는 점에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 묘사는 온전한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투영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금하는 조정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정약용의 처지는 이 무렵 서기원의 처지와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반공법과 체제 비판 억압을 통해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의 처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문인이자 언론인이었던 서기원은 돌연 73년 4월 경제기획원에 새로 생긴 대변인으로서의 소임을 맡아 자신이 비판하던 정권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에 얽힌 배경이나 일화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후배 문인이었던 정규웅의 회고록에서

31) 서기원, 「이조백자 마리아상」 8장, 『현대문학』 1972.3, 164면.

짧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서기원이 경제부처 출입기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태완선이 경제기획원 장관이 되고, 그의 간곡한 청을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²⁾ 작가 자신이 이에 대해 직접 회고한 기록을 찾지 못해 정규용의 언급의 사실성을 모두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71년에서 73년 사이 서기원의 변모는 그 자신으로서도 공직에 참여하는 대외적인 명분을 스스로 확신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사료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교인 보호’나 ‘가문 보호’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처신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극심한 자기 분열에 시달리는 정약용의 모습은 이 시기 작가의 내면 투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

정약용이 배교자 이승훈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정약종과는 달리 동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정약용이 보기에 이승훈은 배교를 선언함으로써 “남인 시파의 방패막이 노릇을 감당”해 온,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희생자이다. 이승훈의 배교로 남인의 몰락을 피하며 벼슬에 안착할 수 있는 자신 역시 그의 배교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비판적으로 볼 수 없다.

남인 시파(時派)의 방패막이 노릇을 감당해온 사실을 작은형이 모르고 있을 덕은 없을 텐데 매부에 대해서 한결 냉정한 것은 역시 입장의 차이 때문인가.

매부의 덕을 보고 있는 자야말로 다름아닌 바로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시 정약용을 괴롭혔다. (중략 인용자) 어쩌면 이승훈편이 이가환

32) 이 부분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관계의 폭이 넓었던 것은 그의 성격이 원만하고 소탈했기 때문이었다. 72년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 때 실시하기 시작한 ‘대변인 제도’의 첫 대변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은 경제부처 출입기자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태완선의 간곡한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서였다.”; 「정규용의 문단 뒤안길 (69)-다양한 경력의 서기원」, 『중앙선데이』, 2010.6.6.

(<https://news.joins.com/article/4221138>)

보다 더 독한 샘인지도 모른다. 이가환보다 더 약한 위인이 시방 승지로 앉아있는 나 자신인지도 모른다. 양권의 욕을 다 면해보려는 심산이니까 말이다.³³⁾

이 소설에서 정약용의 시선은 종교와 신앙 그 자체보다는 ‘정치’에 쏠려 있다. 배교자는 바로 그 정치에서의 안전을 위한 희생자로 의미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내면의 신앙을 지키려는 정약종이라는 인물이 비슷한 분량으로 형상화되긴 하지만, 정약종의 내면 심리가 단선적으로 묘사됨에 반해 정약용은 자기 정당화와 자괴감 사이를 숨가쁘게 오가는 분열적 모습으로 그려진다.

국왕께서 하문했을 때 체제공이 아뢰기를, 정약용은 천주학을 버린 것으로 안다고 했던 것이다. 누구 앞에서도 배교를 밝힌 일은 없다. 그러나 채 대신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게 한 그 무엇이 자신으로부터 비롯했음을 속일 수는 없다. 배교를 선언한 이승훈에 비하면 얼마나 비열한 처신인가. 남의 눈을 기만하며 그래도 혼자서 몰래 천주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자위(自慰)는 자기자신을 속이려는 거짓일 따름, 이젠 천주를 섬길 자격조차 없구나…….³⁴⁾

체제공이 자신이 천주교도가 아니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바로 정약용 “자신으로부터 비롯했음”을 외면할 수 없다는 서술은 바로 신앙과 내적인 신념의 측면이 분열되었음을 자각하는 냉철한 시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정약용은 가문이나 교인을 보호한다는 초반부의 정당화의 논리를 벗어나 진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고, “천주를 섬길 자격조차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이러

33) 서기원, 「이조백자 마리아상」 12장, 『현대문학』 1972.7, 260-261면.

34) 위의 글, 166면.

한 심리 묘사는 외부적 정황에 의해 배교를 하게 되는 김신봉과는 대조적이다. 신봉은 모진 고문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굳건한 의지가 있었지만, 아내와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배교를 하게 되고, 한 번 배교자의 낙인이 찍힌 이후로 교인들의 의심에 의해 다시 한 번 버려지는 인물이다. 그의 배교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그 상황은 온갖 부조리를 한 번에 드러내는 것이지 그 자신의 내면적 분열이나 동기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뚜렷한 외적 정황 없이 내면적으로 분열된 정약용의 인물 형상화는 공식적 사료의 빈틈을 메우는 데 있어 작가 자신의 개인적 상황과 심리를 투영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혁명』의 현주가 보여주는 봉건질서에 대한 반감, 그리고 『조선택자 마리아상』의 정약용 형제가 보여주는 신앙과 정치 사이에서의 분열이라는 복합적 심리 묘사는 작가의 상상적 체험의 리얼함을 현실참여의 의미로 이해하던 서기원 고유의 문학론의 발로이며³⁵⁾, 더불어 실제 작가의 체험이 일정 정도 기저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해리 쇼의 분류에서 ‘목가로서의 역사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이 현재를 과거에 투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소설은 그 중 기본적으로 공식적 사료에 드러나지 않은 빈틈을 상상력으로 메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엄격한 유교 사회 내에서 편찬된 『자찬묘지명』에 누락되었을지도 모르는 정약용의 내면을 재구성하면서 그 상상력의 근저에 작가 자신의 상황과 내면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35) “작품으로 표현되는 내면의 체험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체험의 질량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간추려서 그 작가가 과연 얼마만큼 참된 의미에서 현실에 참여했는가를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작가의 현실 참여는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 가늠되는 것은 아니며, 상상적 체험이 얼마나 진실하게 혹은 「리얼」하게 (「리얼리즘」적 방법론과 결부시키지는 마십시오) 표현했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략) ; 서기원, 「내면형성과 현실참여의 이념」, 『청맥』 1965.6, 146면.

4. 계급 간 대립구도와 지식인의 나약함에 대한 자기반성

『조선백자 마리아상』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양반과 중인, 양민층 등 기존에 존재하던 굳건한 사회적 계급이 신앙과 길항하며 후자로 뿔어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양상에 대한 묘사이다. 이러한 부분은 주로 양민인 신봉의 시선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신봉에 의해 초점화된 양반들의 자기 보호 욕구는 신앙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비겁함의 원인으로 파악되는데, 이 시기 서기원의 문인들의 자기검열과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지점과 상호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다.

천주교 초기 순교사에서 양반과 중인 이하 계층에 대한 처우가 달랐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알려졌던 사실이었다. 60년대 초간 출간된 순교사 관련 한 저서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중인이었던 김범우의 경우이다. 이승훈, 권일신, 정약용 등 사대부 계층이 천주교에 입교하였을 때 함께 활동했던 김범우는 형조판서 김화진에 의해 잡혀가 배교를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하고 귀양지에서도 포교를 행하다 순교한다. 김범우가 홀로 잡혀가자 권일신은 교인들과 함께 가 자신들도 천주교인이니 처형해 달라고 주장하였지만, 양반 계층의 후환이 두려웠던 김화진은 김범우만을 체포하였던 것이다.³⁶⁾ 역사적 기록에서는 계급 간 처우의 차이라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서기원은 이를 발전시켜 처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하층계급의 원한과 양반계급의 죄의식을 보다 복합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신봉이 영세를 받고 제사를 단번에 폐할 정도로 굳은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나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신봉은 그 굳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외부의 계기, 부조리에 희생되는 아 이러니를 보여주기 위한 인물로 설정된 인상이 강하다. 또 한 가지 신봉의

36) 김창문·정재선, 『한국가톨릭: 어제와 오늘』, 카톨릭코리아사, 1963, 38-39면.

역할은 신앙에 있어 계급의 차이가 가져오는 처신의 차이를 예리하게 간파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가 처음 운길마를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교리에 따라 제사를 폐하기까지 하였으나, 정작 그에게 신앙을 전한 정씨 가문 사람들은 제사에 필요한 그릇들을 주문하게 되면서 그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 점에서는 역관 최인길 역시 마찬가지다. 천주교 탄압의 분위기가 거세지자 자기 몸과 가문을 보전하기 위해 분주한 양반들을 비판하고, 그 스스로 주문모 신부를 조선에 초청하기 위해 분주한 인물이다. 이외에도 운길마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신앙을 숨기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처한 변수의 행동은 몸과 벼슬, 가문을 보전하기 위해 소극적인 양반들의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되어 드러난다.

난 어머니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마저 폐했는데, 속과 겉이 판이하게 행세할 수 있는 것도 양반네들의 특권이란 말인가. 말인즉 상전을 끔찍스레 섬기는 은돌이의 귀뜸이 옳다. 같은 천주님을 믿더라도 양반의 죄가 더 중하다는 이치는 알만하다.

허지만 죽기를 맹세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던 나리의 말씀도 당신 스스로의 몸가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애길까.....³⁷⁾

정약종과 같은 이의 죽음을 바라는 맹랑한 심사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신봉이는 알지 못한다. 우리네처럼 무식한 상놈들에겐, 하느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하느니라 가르쳐 주고, 막상 위난(危難)을 당해서는 슬금슬금 뒷걸음질만 치는 것만 같다.³⁸⁾

인용문 ①에서 신봉의 시점에 의해 포착된 양반의 행동은 신앙의 핵심이 되는 진정성과 언행일치의 부재를 간파한 것이다. 하인들이나 신봉을

37) 서기원, 「이조백자 마리아상」 9장, 『현대문학』 1972.4, 225면.

38) 서기원, 「이조백자 마리아상」 17장, 『현대문학』 1973.2, 230면.

대하는 정약종의 온화하고 포용력 있는 태도도 신봉이 간파한 표리부동함에 대한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아내와 아이로 인해 배교하게 되고 은돌의 처참한 죽음을 목도하게 되면서 인용문 ②에서처럼 신봉은 양반 교도들의 죽음을 바라게 된다. 기존의 의아함이 비극적 순교에 대한 충격으로 원한으로 발전된 것이다.

사실 양반, 상민, 노비 등 타고난 계급이 한 개인을 엮어매는 조건과 그로부터 탈출하고자 부단히 분투하는 인간이라는 주제는 이미 동학운동을 그린 『혁명』에서 다룬 것이기도 했다. 양반가의 현주나 노비였던 판석, 소작농인 성출 등은 각자 계급으로 태어난 삶의 무게를 숙명처럼 지고 있으며, 동학이 그런 그들 개개인에게 있어 처음으로 타고난 삶의 조건을 전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물론 여전히 현주는 관군의 앞잡이로 몰려 죽게 되고 판석은 종이였던 그의 아버지를 잃게 되는 등, 그들의 기도는 처참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나, 양반으로서 동학군이 되는 현주의 행동이나 자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판석의 선언은 그 순간 자체로 전복의 기도가 보이는 숭고함이 긍정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선백자 마리아상』에서도 역시 서기원은 양반 계층에 한해서만은 이 타고난 삶의 조건이 천주교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전복의 기회와 맞물려 어떤 결과를 자아내는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명』과는 달리 이 소설에서는 타고난 삶의 조건을 전복하는 인간 개개인의 숭고함, 미래에의 기투가 적극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현주나 판석처럼 양반이나 노비의 신분을 근본으로부터 부정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물형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 은돌의 경우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신앙을 향한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인물로 그려지긴 하지만, 그것이 종이라는 자신의 신분과의 갈등이나 길항을 통해 얻어낸 결과치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혁명』과는 초점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뮈의 ‘반항’ 개념이 담보할 수 있는 전체주의

적 폭력에 대한 경계와 니체의 자기 긍정 등 전후 작가로서의 서기원이 받은 실존주의적 영향을 드러낸 『혁명』과는 다르게³⁹⁾, 『조선백자 마리아상』에서는 기존 신분제도의 붕괴와 새로운 삶의 질서의 유입이라는 유사한 역사적 시공간을 선택하면서도 묘사의 초점은 그 새로운 삶의 질서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부재한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정약종이 은돌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점차 배교자 이가환에 대한 잔인한 비난을 하게 되는 자신의 심리를 일종의 자학과 같은 것이라 자조하는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정약종은 왕명을 받고 충주로 내려가는 이가환을 찾아가 주 신부를 뵙고 싶어한다는 이가환의 부탁을 들어주러 왔다고 그를 자극한다. 이는 이미 「어느 충주목사」에서 정약종이 그를 찾아와 영세를 받으라 권유하고 이에 대해 이가환이 분개하는 장면을 뒤집어 정약종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다시금 형상화한 장면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느 충주목사」와는 다르게 이가환이 아닌 정약종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이 행동 이후 그가 보이는 자학에 대한 죄의식이 주목된다. 즉 은돌과 같은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파했던 사대부 계층이 아무런 희생을 겪고 있지 않다는 수치심이 배교자인 이가환에 대한 잔인한 공격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깨달음이다.

정약종은 치명자가 하류배(下流輩) 가운데서 속출하고 있는 것이 창피하고 언짢았던 것이다. 이가환에게 그런 심술사나운 수작을 붙였던 것도 실상 자학(自虐)의 이지러진 모습 같은 게 아니었던가.⁴⁰⁾

이러한 부분은 이미 서기원이 『혁명』에서 치밀하게 그린 바 있는 ‘원한’, 니체의 용어로 약자의 도덕감정인 르상티망의 심리를 다시금 형상화

39) 류동규, 앞의 글, 301-308, 311-313면.

40) 서기원, 「이조백자 마리아상」 18장, 『현대문학』 1973.3, 260면.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서기원은 은돌의 순교나 윤길마을 사람들의 탄압상을 자세히 그려내는 한편으로, 정약종의 부끄러움과 정약용의 수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계급 간 대립구도와 이를 자각한 사대부 계층의 내면 갈등은 『조선백자 마리아상』 전체를 이루는 주요 갈등축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70년대 초반 필화 사건과 언론, 창작의 자유의 극심한 탄압에 대응하는 문인들의 자세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었던 서기원의 활동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서기원은 한 문학 관련 모임 발제 강연에서 반공법, 체제 비판 등이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소비문화의 발흥으로 작가의 터전이 줄어들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상황 이외 작가가 자신의 내적인 자기 검열이 창작의 부진으로 이어졌음을 말하고, 바로 이것이 작가가 반성하고 경계해야 할 점이라 말하고 있다. 필화 사건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지만, 작가의 양심을 생각할 때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 겁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서기원은 이에 대해 “사실주의에 입각한 풍자나 상징”의 방법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유형 무형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⁴¹⁾

이 때 “사실주의에 입각한 풍자나 상징” 등의 방식은 그가 연재하고 있던 「마록열전(馬鹿列傳)」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그는 이 시기 외부의 압력에 대한 문제의식 못지않게 지식인으로서의 작가의 양심과 자세에 대해서도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백자 마리아상』에서 형상화되는 정약용의 내면적 분열이나 정약종의 자학 심리는 바로 70년대 초반 작가, 지식인들의 자기 검열에 대한 내적 반성과 비판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신봉이나 최 역관에 의한 사대부 계층의 비판이나 윤길마을 변수의 행동과의

41) 「표현 자유와 작가 양심」, 『조선일보』 1971.10.15., 5면.

극명한 대비는 양심, 신앙과 외적 현실이 분열되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관찰과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이어지는 비판으로 볼 수 있다. 목가로서의 역사 활용 양상 중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허구화를 통해 ‘병치’ 시키는 방법이 있음을 떠올려 볼 때, 이 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사대부라는 조선의 지식인 계층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지식인의 책무와 현실적 모순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고 작품이 출간된 당대 현재적 시점에서 이를 되돌아보도록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서기원은 『혁명』에서 전봉준의 변모를 김현주나 조갑호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묘사하면서 4·19에서 5·16으로 이어지는 60년대 혁명에 대해 과거의 시공간을 전유하여 발화한 바 있다.⁴²⁾ 70년대 초반 연재한 『조선백자 마리아상』에서도 현재와 과거의 이중적 배치를 통한 우회적 발언이라는, 해리 쇼의 용어로 ‘목가로서의 역사’ 활용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배반’ 서사의 예각화를 통한 심리적 에너지의 분출을 목적으로 하는 ‘극적 에너지의 원천으로서의 역사’ 활용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소설은 초기 천주교 탄압과 순교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박해사 전개 플롯과 정약용, 정약중, 이가환 등 주요 인물형 설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변용하여 정치권력의 억압 속 지식인의 자기검열이라는 70년대 초반의 문제를 환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외 공직 참여와 지식인의 양심 사이의 분열이라는 작가 개인의 전기적 사실과 연계되는 인물 내면 심리 묘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진 작품이기도 하다.

42) 류동규, 앞의 글, 295-301면.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서기원, 「이조 백자 마리아상」, 『현대문학』, 1971.8-1973.3
_____, 『조선 백자 마리아상』, 한진출판사, 1979.
_____, 『혁명』, 삼중당, 1972.
_____, 「어느 충주 목사」, 『월간중앙』 1971.2, 360-369면.
_____, 「내면 형성과 현실 참여의 이념」, 『청맥』 1965.6, 142-146면.

2. 단행본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판, 민음사, 2012.
김창완·정재선, 『한국가톨릭: 어제와 오늘』, 카톨릭코리아사, 1963.
문규현, 『한국천주교회사 I』, 빛두레, 1994.
신창호, 『정약용의 고해』, 추수밭, 2016.
이능화, 『朝鮮基督教及外交史』, 영원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81.
Dallet, Charles C. 안응열·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上)』,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Shaw, Harry E., *The Forms of Historical Fiction*,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3. 논문

- 강정훈, 「서기원 소설 연구-후기소설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소연, 「1960년대 역사소설의 일제강점기 기억의 서사화 양상 연구-『관부연락선』과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김수태, 「정약용과 천주교의 관계 재론」, 『교회사연구』 제42호, 한국교회사연구소, 2013, 235-288면.
류동규, 「서기원의 『혁명』과 1960년대의 르상티망」, 『어문학』 제141호, 한국어문학회, 2018, 291-319면.
박수빈, 「역사소설의 탈역사화 서술 연구-서기원의 『혁명』론」,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4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245-265면.
송하춘, 「歷史的 事實의 小說化 問題-「革命」과 「들불」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19, 국어문학회, 1978, 147-172면.
신광철, 「이능화의 종교사학과 한국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4호, 한

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177-206면.

우수영, 「1960년대 동학소설과 박정희 군사 정권의 혁명 담론: 최인옥 『전봉준』, 이용선 『동학』, 서기원 「혁명」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제50호, 동학학회, 2019, 43-83면.

이은선, 「서기원 소설의 주체 연구: 몸의 정치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주형, 「동학농민운동 소재 역사소설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그 소설화 양상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 33권 제 1호, 국어교육학회, 2001, 171-211면.

조남현, 「다양한 소재에서 정직한 인식으로」, 『암사지도』, 민음사, 1996, 357-379면.

4. 기타

「위수령, 휴업령 철회, 학생 석방, 부패 척결 촉구」, 『동아일보』 1971.10. 19, 1면.

「표현 자유와 작가 양심」, 『조선일보』 1971.10.15., 5면.

「정규용의 문단 뒤편길 (69)-다양한 경력의 서기원」, 『중앙선데이』, 2010.6.6.

(<https://news.joins.com/article/4221138>)

<Abstracts>

Historical Imagination of Seo Ki-won's *A White Porcelain Statue of the Virgin Mary in Choseon*

Seo, Eun-hye

In this study, I attempts to examine the structures of historical imagination of Seo Ki-won's *A White Porcelain Statue of the Virgin Mary in Choseon*. The main plot of this novel was based on the history of Korean early Catholic martyrology, and Seo mixed it with his original historical imagination to create a story. The imagination is closely related to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in 60s and personal life of the author himself. In this light, this work is the example of using history as a pastoral, to speak in Harry E. Shaw's term.

Key words: *A White Porcelain Statue of the Virgin Mary in Choseon*, Seo Ki-won, the history of Catholic martyrdom, history as pastoral, history as a source of dramatic energy, historical imagination

투 고 일: 2021년 10월 25일

심 사 일: 2021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12월 23일